

광주 대표 신궁들의 특급강의 “세계를 향해 쏘라”

기보배·최미선·이승윤·주현정 등 광주여대서 강사로 재능 기부 경일대 등 타지역 대학도 참여... 대학생들에게 꿈·도전정신 전파

※이 기사의 동영상은 광주일보 홈페이지(kwangju.co.kr)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광주여대에 광주를 대표하는 '신궁'들이 모였다.

이날 광주여대에서는 '세계를 향해 쏘라! 텐텐텐 양궁'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일대, 대구한대, 루터대, 목포해양대, 안양대와 함께 한 이번 행사에서는 초호화 강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김성은 광주여대 양궁팀 감독을 필두로 기보배(런던 올림픽 2관왕, 리우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최미선·이승윤(이상 리우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그리고 주현정(베이징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이 강사로 학생들 앞에 섰다.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는 한국 양궁대표팀에 선발돼 세계 1위를 차지한 '특급 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기보배와 최미선은 광주의 양궁 중심지인 광주여대의 상징적인 인물, '만안나' 주현정은 광주체고를 졸업한 광주의 딸이다. 그리고 이승윤은 올 시즌

광주에 새 등지를 들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들은 피 말리는 국가대표 선발전과 실업연맹실내대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광주 양궁을 알리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냈다.

기보배는 아쉽게 도쿄올림픽 선발전 2차전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모교에서 좋은 에너지를 얻어갔다.

기보배는 “그동안 도쿄 올림픽 선발전 준비하는 데 바빴다. 올 한해 시즌 마무리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다”며 “이런 자리에 오면 보람을 느끼게 된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와 졸업하고 모교를 보는 게 다르다. 후배들 보면 뿌듯하다”고 웃었다.

또 “김성은 감독님 덕분에 금메달리스트들이 모였다. 시험 때가 아닌 이상 모이기 쉽지 않은데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최미선에게도 즐거운 모교 나들이가 됐다. “오랜만에 모교에 왔다”는 최미선은 “운동만 하다가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됐다. 지도자가 돼 가르쳐 보니까 나중에 지도자로서도 역할을 해볼 수도 있

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웃었다.

또 “이렇게 금메달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하는 게 신기하고 처음 보는 일인데 이런 자리가 또 있으면 좋겠다”며 “휴가 기간 재미있게 놀고,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꼭 올림픽에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이은 대회에 피곤하지만, 이승윤에게도 자신과 양궁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승윤은 “이런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메달리스트가 모인 게 처음이고, 이렇게 큰 규모도 처음이라서 정신이 없다. 그래도 많은 분이 양궁을 접할 수 있어서 기분 좋다”며 “새로운 곳에 와서 잘 지내고 있다. 적응 기간이라고 할 것도 없이 바로 적응하고 훈련 즐겁게 잘 하고 있다. 지도자분들도 편하게 지원해주셔서 지난해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광주는 여자가 명문인데 남자는 볼모지 느낌이 있다.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는데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부담감이 줄었다”며 “뭔가 하나는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광주 남자 양궁 최초로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는 게 목표다”고 각오를 밝혔다.

생활체육지도자로 활약 중인 주현정도 고향에서 어릴 적을 떠올렸다.

주현정은 “김성은 감독님이 어릴 때 저를 발굴해주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올림픽도 나가게 됐다. 감



지난 10일 광주여대에서 진행된 '세계를 향해 쏘라! 텐텐텐 양궁' 프로그램 강사로 나선 기보배(왼쪽부터), 주현정, 최미선, 이승윤.

동남 계시는 곳에 와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현역에 있는 후배들과 함께 하니 재미있고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린 선수들 가르치는 양궁 강사로 지내고 있

다. 엘리트보다 생활체육에 꿈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 클럽에서도 국가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바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야구 동호인들 강진으로 모여라”

제1회 강진군수기 사회인 야구대회 14~15일 개최



강진군에서 개최된 사회인 야구대회 모습.

‘제1회 강진군수기 전남·광주 사회인 야구대회’가 14일부터 이틀간 강진야구베이스볼파크에서 개최된다.

강진군체육회가 주관하고 강진군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사회인 야구 15개팀 400여 명이 참가한다.

대회는 생활체육야구의 저변 확대와 동호인 간 친목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재영 강진군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이번 대회를 추진해 준 강진군에 감사하다. 생활체육야구가 건전하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특히 이번 대회가 지역 야구동호인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옥 군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대회 및 동계전지훈련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당일 체온 측정, 방역물품 및 방역 대장 작성 등 대회 기간 동안 정부 지침을 준수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대회를 진행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전남볼링 금 2 등 메달 4개 수확

한려대 박대희 개인전 1위 전남과학대 5인조전 우승



한려대학교 박대희(왼쪽)와 김호진이 각각 금메달과 퍼펙트게임 인증서를 선보이고 있다.

전남볼링이 제34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에서 금메달 2개 등 메달 4개를 따냈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북 익산 김스볼링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한려대학교 박대희가 개인전 1위, 여대부에 출전한 전남과학대학교가 5인조전에서 우승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대희는 남대부 개인전에서 합계 941점, 4경기 평균 235.3점을 기록, 정상에 올랐다.

전남과학대학교는 여대부 5인조전에서 4경기 합계 4208점을 기록, 평균 210.4점으로 한국체육대학교를 제치고 단체전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우승주역은 이수지·한미향·정다현·전정원·홍희진·정윤경이다.

퍼펙트게임 기록도 수립됐다.

한려대 김호진은 남대부 3인조전 3경기에서 10프레임까지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 퍼펙트게임(300점)을 기록했다.

김호진은 대한볼링협회장으로부터 퍼펙트게임 인증서를 받았다.

전남조리과학고의 윤아름은 여고부 개인전에서 902점을 기록, 4경기 평균 225.5점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윤아름은 개인전, 2인조, 3인조, 5인조전을 합산한 개인종합에서도 총점 3334점, 평균 208.4점으로 동메달까지 목에 걸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세팍타크로 회장기 대회 우승



동신대 세팍타크로팀 문대진(왼쪽부터)·남준현·최문정 선수, 안민주 교수. <전남도체육회 제공>

동신대학교 세팍타크로팀이 회장기 대회를 제패했다.

동신대학교 세팍타크로팀은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31회 회장기 전국세팍타크로대회 남대부 3인조 레구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했다.

최문정(4년)·남준현(2년)·문대진(1년)이 출전한 동신대학교는 첫 경기 대구과학대와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이어 경희대학교와 목원대학교를 각각 2-1로 제압, 전승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남대부는 4팀이 참가해 풀리그로 우승을 가렸다.

여고부에서는 순천전자고등학교가 3인조 레구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소원·박혜진·이유림(이상 3년), 천화원(2년)이 출전한 순천전자고는 예선에서 한림디자인고를 2-0으로 몰리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사천여고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순천전자고는 결승에서 횡성여고에 아쉽게 1-2로 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영욱 전 광주FC 단장, 프로축구 부산 대표이사에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는 11일 신임 대표이사에 기영욱(63·사진) 전 광주FC 단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K리그1(1부) 승격 1년 만에 다시 K리그2(2부)로 강등된 부산은 “과감한 혁신을 통한 쇄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도자 및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기영욱 전 광주 단장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기성용(FC서울)의 아버지인 기영욱 신임 대표이사는 금호고, 광양제철고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으며, 대한축구협회

이사, 광주광역시축구협회장, 광주단장 등을 지냈다.

기 대표이사는 구단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 영입과 젊고 독창적인 선수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명문 구단으로서 부산 아이파크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며, 승격을 넘어 K리그의 변화를 주도하는 구단으로 팬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